

연대	동양사	서양사
약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출현	
약 2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출현	*원생 인류의 조상으로 유럽의 크로마뇽인, 중국의 상동인 등이 이에 속하며 동굴 벽화 등의 예술 작품을 남겼다.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 시작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	
1600년경	중국, 상 왕조 성립	
1500년경	아리아인, 편자브 지방 정착	
기원전	11세기경 주 왕조 성립	
770	주의 동천(춘추 전국 시대 시작)*	
	*주 왕조는 건웅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호경에서 낙읍(뤄양)으로 옮겼다 이후 동주 시대가 전개되었는데, 이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도 한다.	*아테네의 정치가이다. 부유해진 평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하자,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라 평민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6세기 초 솔론*의 개혁
		492 그리스·페르시아 전쟁 발발
		431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04)
		334 알렉산드로스, 동방 원정 시작
		264 포에니 전쟁*(~기원전 146)
		*서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싸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세 차례에 걸쳐 벌인 전쟁이다.
	221 진시황제, 전국 시대 통일	
	206 진(秦) 멸망	
	202 한 성립	
기원후	8 왕망, 신(新) 건국	
	25 후한의 초대 황제 광무제 즉위	
100	184 황건적의 난 발생	
200	220 후한 멸망	
	280 진(晉), 삼국 시대 통일	
300	304 5호 16국 시대 시작	
	320 인도, 굽타 왕조 성립	
		31 악티움 해전*
		*그리스 북서부의 고대 도시인 악티움 앞바다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³¹ 의 연합 함대를 격파한 전투이다.
		235 로마, 군인 황제 시대 시작
		313 콘스탄티누스 황제, 크리스티교 공인(밀라노 칙령)
		325 니케아 공의회 개최
		395 동서 로마 제국 분리

연대	동양사	서양사
400	439 북위, 화북 통일 <i>386~</i>	
	471 북위, 효문제* 즉위 (~499)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황실의 성씨를 원씨로 하였으며, 의복과 언어 등에서도 한족의 풍속을 따르도록 하였다.	476 서로마 제국 멸망 481 클로비스, 메로베우스 왕조 수립 (~751)
500		529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시작 537 성 소피아 성당 건립
	589 수, 남북조 통일 <i>581~</i>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편찬된 법전으로 『로마법 대전』이라고도 불린다. 후대 서양 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600	618 당 건국	
	622 헤지라(이슬람력의 기원 원년)	
	645 일본, 다이카 개신*	*일본에서 중국의 율령제를 수용하여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수립하려 한 개혁이다.
	661 우마이야 왕조 성립 (~750)	
700	710 일본, 나라 시대 시작 (~794)	
	750 아바스 왕조 성립 (~1258)	
	751 탈라스 전투	
	755 안사의 난 (~763)	
	756 후우마이야 왕조 성립 (~1031)	
	794 일본, 헤이안 시대 시작 (~1185)	
800		726 성상 파괴령 732 카롤루스 마르텔, 투르 · 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격퇴 751 피핀, 카롤루스 왕조 수립 (~843) *공정 학교를 세워 고대 그리스 · 로마의 고전을 번역하는 등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800 카롤루스 대제* 서로마 황제 대관 <i>재위 768~814</i> <i>813</i>
	875 황소의 난 발생	870 메르센 조약
	894 일본, 견당사 파견 중지 <i>630~</i>	
900	907 당 멸망, 5대 10국 시대 시작 (~919)	
	916 거란(요) 건국	
	960 송 건국	
1000	<i>1004</i> <i>1032</i> 1055 쉘주크 튀르크, 바그다드 입성 <i>1071</i>	1054 동서 교회의 분열(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1077 카노사의 굴욕 <i>1095</i> 1096 제1차 십자군 전쟁 (~1099)

연대	동양사	서양사
1100	<p>1115 여진, 금 건국</p> <p>1125 거란(요), 금에 멸망</p> <p>1127 북송 멸망, 남송 시작</p> <p>1185 일본, 가마쿠라 막부 성립</p>	<p>1122 보름스 협약*</p> <p>*서임권을 교황이 차지하는 대신 성직자는 국왕의 봉신이 되었다.</p>
1200	<p>1206 테무친(칭기즈 칸), 몽골 부족 통일</p> <p>인도, 델리 술탄 왕조 성립</p> <p>1234 금, 몽골에 멸망</p> <p>1258 아바스 왕조 멸망</p> <p>1271 원 성립 → 1272</p> <p>1279 남송 멸망</p> <p>1299 오스만 제국 성립</p>	<p>1202 제4차 십자군 전쟁 (~1204)</p> <p>1215 대헌장* 승인</p> <p>*본래 영국에서 귀족의 권리를 보장한 문서였으나 후대에 이러한 권리가 점차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었다.</p>
1300	<p>1330</p> <p>1336 일본, 무로마치 막부 성립</p> <p>1368 명 건국*</p> <p>1370</p> <p>*명 태조 주원장은 난징을 수도로 하여 명을 건국하고 몽골을 북방으로 몰아냈다.</p>	<p>1302</p> <p>1309 아비뇽 유수* (~1377)</p> <p>*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의 주도로 새로운 교황에 오른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의 거처를 아비뇽으로 옮긴 것을 말한다.</p> <p>1337 백년 전쟁 (~1453)</p> <p>1358</p> <p>1378 교회의 대분열 (~1417)</p> <p>1381 와트 타일러의 난</p>
1400	<p>1402</p> <p>1405 정화의 항해 (~1433)</p> <p>1453 오스만 제국,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비잔티움 제국의 멸망)</p>	<p>1414 콘스탄츠 공의회 (~1418)</p> <p>1455 장미 전쟁 (~1485)</p> <p>1488</p> <p>1492 콜럼버스, 서인도 제도 도착 → 1502</p> <p>1498</p>
1500	<p>1501 사파비 왕조 성립 (~1736)</p> <p>1517</p> <p>1526 무굴 제국 성립</p> <p>1529</p> <p>1538</p> <p>1573 → 1581</p> <p>1582</p> <p>1559 1562 1568</p>	<p>1517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p> <p>1519 마젤란 일행, 세계 일주 (~1522)</p> <p>1534 1536</p> <p>1543 코페르니쿠스,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발표</p> <p>1545 1546</p> <p>1555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루터파 교회가 인정되었다.</p> <p>1571 에스파냐 등, 레판토 해전 승리</p> <p>1598 낭트 칙령 발표</p>
1600	<p>1603 일본, 에도 막부 성립</p> <p>1616 후금 성립</p> <p>1635</p> <p>1636 후금, 국호를 청으로 고침</p>	<p>1600 1603 1618 1625</p> <p>1628 권리 청원 제출</p> <p>1629 → 1640</p>

연대	동양사	서양사
1600	1644 명 멸망 <i>1661</i> 1673 삼번의 난(~1681) 1689 네르친스크 조약 체결	1642 청교도 혁명(~1649) 1648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1649 크롬웰, 공화정 수립 <i>1651 1653 1660 1673 1679 1685</i> 1687 1688 영국, 명예혁명 발발 1689 권리 장전 승인 1690 <i>1702 → 1707 → 1714</i>
1700	<i>1712 → 1730</i> 1720 1757 플라시 전투* <i>1760</i> 1773 1782 1791	<i>1751~</i> 1756 7년 전쟁(~1763) <i>1762 1765 1768 1772</i> 1773 보스턴 차 사건* <i>1774</i> 1776 미국, 독립 선언문 발표 <i>1781 → 1783 → 1787</i> 1789 프랑스 혁명 시작,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발표 <i>1791 → 1792 → 1793 → 1794 → 1795</i>
1800	1805 이집트, 무함마드 알리 집권 <i>1828</i> 1839 오스만 제국, 탄지마트 발표 1840 제1차 아편 전쟁(~1842) 1842 난징 조약 체결 1851 태평천국 운동(~1864) 1854 미일 화친 조약 체결 <i>1853</i> 1856 제2차 아편 전쟁(~1860) 1857 인도, 세포이의 항쟁* 시작 → <i>1858</i> <i>1858 →</i> 1860 베이징 조약 체결 <i>1861 1865</i> <i>1866</i> 1868 일본, 메이지 유신 시작(~1912) <i>1871</i> <i>1869</i> <i>1876 →</i> 1877 영국령 인도 제국 성립 1884 청프 전쟁(~1885) <i>1885 1889 1890</i> 1894 청일 전쟁(~1895) <i>1898 1899 1901</i>	<i>1799 →</i> 1804 나폴레옹, 황제 즉위 <i>1805 → 1806 → 1811 → 1812</i> 1814 빈 회의 개최(~1815) <i>1821~ 1823 1825 1828 1829</i> 1830 프랑스, 7월 혁명 1832 영국, 제1차 선거법 개정 → <i>1838</i> 1834 독일, 관세 동맹 성립 <i>1846</i> 1848 프랑스, 2월 혁명 <i>1851 → 1852 1853 ~ 1856</i> <i>1858</i>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제가 러시아의 근대적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 라 여겨 농노제를 철폐하였다. 1861 러시아, 농노 해방령* 발표 미국, 남북 전쟁(~1865) 1863 링컨, 노예 해방 선언 <i>1866 1867 1869</i> 1871 독일 제국 성립 <i>cf) 1861</i> <i>1881</i> 1882 3국 동맹 성립 <i>1887</i> 1898 파쇼다 사건* *아프리카에서 중단 정책을 추진하던 영국과 황단 정책을 추진하던 프랑스가 수단의 파쇼다에서 충돌한 사건이다.

*인도에서 영국과 벵골·프랑스 연합군이 벌인 전투이다. 프랑스군과 결탁한 인도 벵골 태수의 군대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군에 패하였다.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저항하면서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의 차상자를 바다에 던져 버렸다.

연대	동양사	서양사
1900	1904 러일 전쟁(~1905)	1905 러시아, 피의 일요일 사건
	1905 영국, 벵골 분할령 발표 → 1906	1907 3국 협상 성립
	1906 오스만 제국, 청년 튀르크당 혁명	1908
	1911 신해혁명	1911 1912 → 1913
	1912 중화민국 수립	1914 사라예보 사건, 제1차 세계 대전(~1918)
	1915	1917 러시아 혁명 3월 → 11월
	1919 5·4 운동*	1918 파리 강화 회의(~1920), 베르사유 조약 체결
	1921	1920 국제 연맹 창설
	1922 터키 공화국 수립	1921
	1924 중국, 제1차 국공 합작 성립	1922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소련) 수립
	1926 → 1928	1924
	1930 1931 만주 사변	1925
	1934 중국, 공산당 대장정 시작 (~1936)	1929 대공황 발생
	1937 중일 전쟁 발발, 제2차 국공 합작 성립	1932 1933 1934 1935
	1941 일본, 진주만 기습(태평양 전쟁 발발)	1936 ~ 1939
	1942	1937 1938 1939
	1945 일본 항복	1939 제2차 세계 대전(~1945)
	1946	1941 대서양 헌장 발표 } 1940
	1947	1943 1944
	19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 독일 항복, 국제 연합(UN) 창설
1949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 1953	1947 미국, 트루먼 독트린 발표	
1955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동 회의) 개최	1948 소련, 베를린 봉쇄(~1949)	
1958 ~ 1961	1949	
1964	1951 1954 1956	
1966 중국, 문화 대혁명* (~1976)	1961 베를린 장벽 설치	
1967	1962 미국, 쿠바 봉쇄	
1973 → 1976	1969 미국, 닉슨 독트린 발표	
1979 중국, 미국과 수교	1972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1989 중국, 톈안먼 사건 발생 (5월)	1980	
1992	1985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취임	
1997 영국, 중국에 홍콩 반환	1989 베를린 장벽 붕괴(11월)	
1999	1990 독일 통일(10월)	
2000	1991 소련 해체 1992 → 1993 1994	
	1995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1999	
	2001 9·11 테러 발생	
	2016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중국 '21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을 요구하는 반봉건·반군벌·반제국주의 시위가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68
*마오쩌둥이 홍위병을 동원하여 실용주의 경제 노선을 추진하던 인물들을 몰아내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정책과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소련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